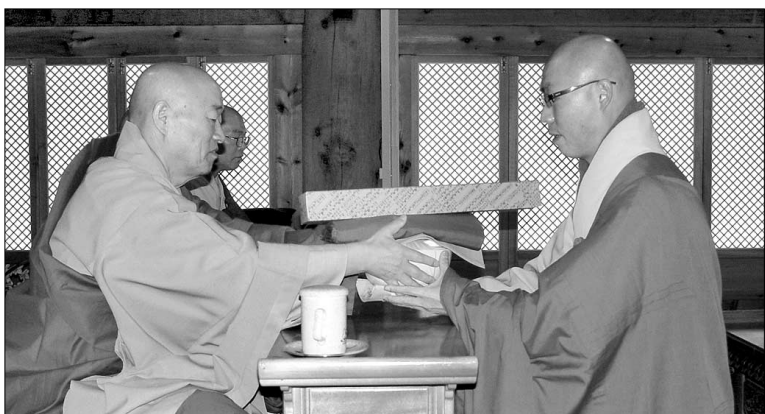


“성불하는 날까지 계율 지키길 것”

파계사 영산율원 비니정맥 전계익식 봉행 정각·덕문·도암 스님 ‘자운계맥’ 이어



파계사 주지 성우 스님(왼쪽)이 정각 스님에게 계맥을 전하고 있다.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은 3월 14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계율의 바른 맥을 전하는 비니정맥 전계익식을 봉행했다. 파계사 주지 성우 스님은 영산율원 졸업생인 정각 스님에게,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통도사 율원 강사 덕문 스님과 송광사 율원 율감 도암 스님에게 각각 자운 율사로부터 내려오는 계맥을

전했다. 전계식은 조계종단일계단위원회 성수 스님과 前 조계종원로회의 의장이며 파계사 대비암 회주 도원 스님, 통도사 부업장 성파 스님을 비롯한 25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고불문, 전계제자 소개, 계맥 설명, 전계제자 서원, 전계첩과 의발 수여, 축사, 격려사 받아 전계율사

인사로 진행했다. 도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도를 닦는 수행덕목 계, 정, 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율의 전수는 의식적으로 전하고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불하는 날까지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니 오늘의 성스러운 정신을 잊지 말고 모든 스님들이 지계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수 스님은 “주장자를 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보는 그 자체가 누군지 확실히 만나보면 천하만물이 진리 아님이 없고 세상만사가 도아님이 없다”며 “입은 헛말하지 말고 손은 헛일하지 말고, 발은 헛걸음 걷지 말라”고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가 살려면 계율이 살아야겠기에 율원 만들었고, 두 번째 이런 인연을 맺게 됐다”며 소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파계사는 지난 2004년 11월 석가모니 불에게서 심지율사에게 이어진 후 끊어진 계맥을 자운율사까지 이어 복원정립해 정통계맥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시도로 6명의 스님에게 비니정맥 전계식을 봉행한 바 있는데 이날 두 번째 전계식이 봉행된 것이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영남불교대학 야구단 창단

지난해 10월 불교계 최초의 리틀야구단을 창단했던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가 이번에는 일반 사회인 야구단을 창단했다. 대구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사회인 야구단 ‘블랙비스트’를 인수한 것.

2월 16일 재창단 된 ‘영남불교대학 블랙비스트’는 이현석 감독, 정육진, 김철주, 고봉철 코치의 지도하에 19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다. 매주 1회 연습과 시합이 있으며, 지난 동계리그에서 우승을 거둔바 있는 영남불교대학 블랙비스트는 현재 서울신문에서 주최하는 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배지선 기자

법광사 부설 달마선원 개원

대구 법광사(주지 호신) 부설 달마선원이 3월 12일 수성구 어린이회관 옆에 개원했다. 2년 전 중구 동인동 4층 포교당으로 개원했던 법광사가 이전 개원한 것.

280평 규모의 법광사 달마선원은 약 50평 규모의 법당 외에 별도의 수련장과 다실을 갖추고, 태극권 선체조 다도 꽃꽂이, 사찰음식등의 다양한 문화교양을 개설할 예정이다. 법광사 주지 호신 스님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태극권강좌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어린이 태극권강좌, 선체조 등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053)761-6943

배지선 기자

대구BBS 한마음 합창제

한복명장 패션쇼도 열여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는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이)이 ‘2006 한마음 합창제 및 김복원 한복명장 패션쇼’를 3월 25일 오후 3시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한다.

전불가 보급을 위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합창제에는 원만사합창단, 금강사 금강반야합창단, 직지사 보리수 합창단, 진각종 금강합창단 등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 합창단 13개 팀이 참가하며, 합창제가 끝난 오후 5시 30분부터는 한복명장 김복원씨의 패션쇼가 특별히 펼쳐질 예정이다. (053)427-5114

배지선 기자

월정사 ‘문수산악회’ 창립

평창 월정사(주지 정범)가 ‘문수산악회’를 창립했다.

월정사는 3월 12일 오대산 비로봉으로 산악회 발족을 위한 준비산행을 하고 산악회 창립을 결의했다. 월정사 주지 정범 스님을 비롯해 130여명이 참석한 산행에서 또 진부지역 팀장에 황정구씨, 강릉지역 팀장에 김국정씨, 서울지역 팀장에 신영철씨를 임명했다. 산행은 매일 1회 실시되며, 분기별로 시행되는 전체 산행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종교 편향자 공천반대서명운동

포항천주교불교성직자모임

포항천주교불교성직자 모임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종교편향정책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당사 전 포항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벌였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벌인 종교편향자 공천반대 서명운동에는 1120명이 서명했고,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직지사 등 조

계종 대구경북지역 교구 본발사 주지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 스님,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와 안동 그리스도 교육회 등이 동참했다.

한편 포항천주교불교성직자모임이 벌인 서명운동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된 공직 선거법 10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세

한근수

동화사 교무과장



대구불교회관 6층에 마련된 대구 불교위원회 사무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과 하나 된 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올해도 불교위원회는 한근수(37)씨가 맡았다. 7년 전부터 불교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한근수 씨는 3년째 불교위 실무간사를 도맡으며 지역불교계의 중요한 매진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지도자급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들이 큰 틀을 만들고 기획을 하면 사찰마다 찾아가고 발로 뛰며 단체와 불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체화시키는 일은 한과장이 맡는다.

게다가 동화사 교무과장이면서 포교 호법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한근수 과장이다. 지역불교계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에, 사찰 신행단체들이 포교와 신행활동을

원망할 때도 없다. 어릴 때 기독교인이었다는 한 과장은 가장 대성고교 시절 ‘십자가 위에 유입신’이 있지만 만(만)자는 나로 실무간사는 한근수(37)씨가 맡았다. 7년 전부터 불교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한근수 씨는 3년째 불교위 실무간사를 도맡으며 지역불교계의 중요한 매진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지도자급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들이 큰 틀을 만들고 기획을 하면 사찰마다 찾아가고 발로 뛰며 단체와 불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체화시키는 일은 한과장이 맡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개구쟁이로 자랐고, 거침 없는 행동으로 사고도 많았다는 한 과장은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망아지 인생’이었을 거라고 회고했다.

약간 불복(?)한 외모에 심긔 웃음을 트레이드마크로 ‘포대화상’이란 별칭을 달고 다니는 한과장은 결속한

포교업무 담당하며 신행단체들 가교역할

봉축행사, 유니버시아 대회 등 원만히 진행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찰 간 스님과 불자들 간의 다리를 놓으며 지역불교계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 포교, 어린이 포교, 파라미타 포교에 관심이 많은 한 과장은 파라미타 연중행사계획 수립에도 함께 하고, 군 법당 수계법회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중간 다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저는 옆에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일 뿐인데요.” 주어진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며 겸연쩍어하지만 스님과 재가불자 사찰과 신행단체 사이에서 ‘기름’을 치고 의견을 조율하는 비타단 같은 그의 역할은 언제나 싱그럽다. 특히 교계 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항의는 도맡아 해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나’라는 아상은 일찌감치 내려놓았다. ‘샌드위치’가 될 때 제일 힘들다는 한과장이지만 특유의 웃음과 재치로 번번이 화합을 이끌어낸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 ‘수처자주’ 오직 이 하나만 생각합니다.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하구요”

어디서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한 과장. 그래서 뜻을 돌릴 줄도 모르고

재담으로 지역불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곳곳에서 강사초빙 의뢰가 있을 정도다. 또 동화사 최고의 베스트드레서로 꼽힌다. “웃은 깔금, 머리는 단정, 구두는 반짝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쾌활한 성격에 22개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 과장은 포교사자격증과 테크레이션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또 현재 경운대 관광경영학과 야간반 4학년에 재학중이다. 불교활동에 문화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졸업 후엔 장례문화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유니버시아드종교관을 운영한 실무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던 한근수 과장은 “올해도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봉축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한국근본불교조계종 6세종정 및 총무원장, 종회의장 이·취임대법회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은 지난 1월 14일 용인 소재 중앙총무원에서 제6세종정에 일송근스님을 추대하고 총무원장에 우담스님 중앙종회의장에 현공스님을 추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운번창기원 및 이·취임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 본종 종도는 행사당일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일시 : 2006년 4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 1부 법요식, 2부 연회
- 장 소 : 서울 세검정 하림각 대연회장(02-396-2442)
- 규 모 : 사부대중 1천여명
- 참 고 : 소의경전 아함경 편찬 배부
- 문의전화 : (033)671-7751,4 / (031)285-5102(총무원장 우담 011-257-1601)
- 후 원 : 불교TV, 인터넷불교방송,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교계 각 신문사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
대 회 장 의 루 / 봉 행 위 원 장 대 현 합 장

■ 총 본 산 : 우214-814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1 불탑사 033)671-7751, 4
■ 총 무 원 : 우446-9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562-4 만다라선원 031)285-5102